

		<b>보도설명자료</b>			
		배포일시	2020. 11. 17(화) 총 1대		
담당 부서	신공항기획과	담당자	• 과장 오원만, 사무관 권오준, 주무관 박찬호 ☎ (044) 201-4137, 4171, 4143		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국토교통부는 총리실 검증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며, 조속히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.

□ 오늘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(안)은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이 어렵고, 지자체 반대 시 산악장애물 제거가 필요\*하여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.

\*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, 산악장애물을 존치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'19년 6월 부울경 3개 단체장과 합의한 합의문에 따라 검증위 검증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.

○ 그동안 국토부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('15.1)에 따라 해외 전문기관인 프랑스 ADPi에 의뢰하여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의 최적입지로 확정('16.6)하고 기본계획(안)을 검토\*해 왔습니다.

\* 국내외 기준과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산악장애물 절취 없이도 안전한 비행 절차수립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어 산악장애물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마련

○ 그러나, 법제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검증위 검증결과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, 향후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권오준 사무관(☎ 044-201-417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